

메시지 2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
(2)

성경: 엡 4:15-16, 20-24, 5:2, 8, 18, 요 6:57

III.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둘째 항목은 우리가 범사에 머리아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엡 4:15.

- A.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범사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도록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것을 대체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한다—엡 4:15-16, 막 9:7-8.
1.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막 1:1-8, 9:2-8, 골 2:16-17, 히 10:5-10, 11:5-6, 참조 사 22:15-25.
 2.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두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종류, 하나님의 단체적인 걸작품인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시어’,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를 되돌리셨다—창 1:26, 고전 11:7상, 갈 2:20, 엡 2:6, 10, 15, 사 43:7.
 3.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지체들이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써, 한 새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골 3:10-11, 고전 10:31.
- B.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이다—롬 11:17, 24.
1.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러한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체하신다. 대체는 연결을 요구하는 반면, 교환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요 15:4-5)을 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결합시키시고 우리와 연결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종결되었다(롬 6:6).
 2.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해 사심으로 우리를 대체하신다.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갈 2:20, 빌 1:19-21상.

IV.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엡 4:20-24.

- A. 요한복음 6장 57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의 복사판인 새사람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 되는가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신성한 생명의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그분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의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산출한다.
- B. 요한복음 6장 57절 상반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이다.

1. 주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로 아버지를 누리셨다. 이러한 누림은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살도록 공급하는 요인이 되었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선택하도록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사 7:14-15, 출 3:8, 요 1:14-17, 5:19-20, 8:29, 16:32, 17:26, 눅 2:12, 빌 2:8.
 2.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누리신 것이었다. 이러한 능력에 의해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수행하도록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다—마 11:25-30, 14:22-23, 막 1:35, 10:45, 14:36.
- C. 요한복음 6장 57절 후반절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생활이며,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 요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공급하고 힘을 주는 요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신다—요 6:63, 롬 15:16, 롬 8:2, 12:1-2.
 2. 우리는 매일 그분을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로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살아 있는 본으로 계신 주님을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출 3:8, 벧전 2:2, 시 119:103.

V.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넷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엡 5:2, 8.

- A.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후 1:4).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며(요일 4:8, 16), 빛이시다(1:5).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 B.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교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시도록 하며,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한다—요 4:24, 눅 15:20, 마 5:15-16.

VI.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넘쳐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엡 5:18

- A.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 충만한 것의 넘쳐흐름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길이다—엡 5:19-21.
- B.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은혜 위의 은혜로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흐름이 될 수 있다—엡 3:8, 1:23, 3:19하, 롬 10:12-13, 엡 6:17-18, 요 1:16.
- C.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가 되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그분의 전사가 될 것이다—엡 5:18, 25-27, 6:10, 17-18.